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19. 4. 12(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아 · 태평양

- 호주, '폭력영상 未삭제시 인터넷 플랫폼기업 처벌' 법안 통과
 - 4.4 호주 의회는 '폭력적 내용의 영상물을 합리적 시간내에 삭제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
 - * 최대 3년 이하 징역, 최대 약 85억원 또는 연간매출액의 10% 벌금부과 가능
-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격테러범에 살인혐의 50건 적용
 - 4.4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달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기난사테러(사망 50명, 부상 39명)를 저지른 「브렌던 태런트」에게 50건의 살인혐의와 39건의 살인시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발표
- 뉴질랜드, 총기난사테러 26일만에 '총기개혁법' 제정
 - 4.10 로이터통신은 뉴질랜드 의회에서 군대식 반자동총기·공격용 소총·대용량 탄창 등을 금지하는 '총기개혁법'이 통과되었으며, 총독의 재가를 거친 후 4.12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
 - * 19.9월까지 사용금지 총기를 반납해야 하며 소지하다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처벌

유 럽

- 독일, ISIS 가담 독일인 자녀 귀국 조치
 - 4.5 유럽 국가들이 자국인 ISIS 포로 송환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정부가 중동에서 ISIS에 가담한 자국인의 어린 자녀 일부를 포로로 잡힌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데려왔다고 발표
 - * ISIS 가담혐의로 억류된 독일인은 이라크 8명, 시리아 60명 이상 추정

○ 오스트리아, 불법 이민자 입국차단 위해 국경통제 강화

- 4.7 오스트리아 정부는 ISIS 패퇴 이후 시리아·이라크 등지에서 ISIS 전투원의 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셴겐 조약’*에 어긋나더라도 헝가리·슬로베니아 접경을 최소 11월까지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
- * 유럽 26개국 간의 국경 개방조약(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 네덜란드, ‘美 입국거부’ 우려한 테러용의자 변호중단 논란

- 4.8 네덜란드 언론은 작년 9월 체포된 테러모의 용의자들을 변호해오던 변호사 2명이 미국 입국거부 가능성을 우려해 변호를 중단했으며, 이는 테러 용의자들을 변호해 오던 네덜란드·벨기에 변호사 몇 명이 최근 미국 입국이 거부된데 따른 결정이라고 보도
- * 한편, 美 관계자는 직업에 따른 입국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보도

미 주

○ 백인우월주의 테러, SNS를 통한 모방 등 확산추세

- 4.3 뉴욕타임즈는 인터넷·SNS의 발달이 백인우월주의 테러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11년 이후 유럽·북미·호주 등에서 발생한 극우 백인우월주의 테러범의 1/3이 기존 범죄를 모방하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도

○ 美, 워싱턴 인근에서 ‘트럭돌진테러’ 계획한 ISIS추종 미국인 남성 체포

- 4.8 로이터통신은 ISIS를 추종해오던 중 차량돌진테러를 계획하고 트럭을 훔친 후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범행지역·대상을 물색하던 메릴랜드주 출신의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
- * 佛 니스트럭테러(16.7.14, 86명 사망)같은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진술

중 동

○ 리비아, 리비아국민군(LNA)의 수도 외곽 진격으로 긴장고조

- 4.8 AP통신은 「하프트라」 사령관이 이끄는 LNA가 미티가국제공항을 공습하면서 수도 트리폴리 인근까지 진격하는 등 리비아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
- * '11년 카다피정권 붕괴후 서부는 통합정부, 동부는 「하프트라」가 점령

이집트 콥트교회 연쇄폭탄테러

- '17. 4. 9(일) 이집트 북부 콥트교회(2개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하여 47명이 사망하고 110여명이 부상
 - 테러범들은 부활절(4.16)을 앞둔 일요일에 카이로 북쪽의 탄타市 및 알렉산드리아市에 있는 콥트교회에 예배를 위해 모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 감행
- 테러이후 ISIS에서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였고, 이는 4월말 교황의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 한편, 이집트 당국은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4.9)*하였으며, 현재까지 2년간 지속 중
 - *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집회·시위 등 기본권 제한 및 영장없이 테러의심자 수색·체포가능

테러 상식

< 콥트교(Coptic Church) >

- (개요) 콥트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자생*한 기독교의 분파로서, 콥트교인은 이집트 인구(약 1억명)의 약 10%로 추산
 - * 성 마르코(마가)가 서기 50년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운 이후 전국 확산
- (테러위협) 콥트교와 이집트 내 다수(90%)를 차지하는 이슬람 간 갈등은 심하지 않았으나 콥트교가 '13.7 「무르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부 쿠데타를 지지한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등에 의한 콥트교 공격이 증가

2015.2.15

ISIS 리비아 지부, 이집트 콥트교인 21명 참수

2016.12.11

이집트 카이로 콥트교회에서 ISIS의 자살폭탄테러로 25명 사망

2017.4.9

이집트 북부 탄타, 알렉산드리아의 콥트교회에서 연쇄폭탄테러로 47명 사망

2018.11.2

이집트 중북부에서 콥트교도 탑승버스 총격테러로 7명 사망